

現代人の 倫理的 性格

倫理의 두 가지 典型 (6)

金午星

그러므로 近來에 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쳐 『저 사람은 倫理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가 從來의 倫理的 德目을 지키지 안는다는 것을 意味함이 아니고, 그가 批判的 精神을 缺如하고 잇슴을 意味하고 잇슴을 보아서도 알 수 잇는 일이다. 그런대 批判은 單純히 拒否가 아니고 同時에 創造를 意味하는 것이다. 批判意識이 倫理的인 所以는 그것이 非人間的 強制를 拒否하는 同時에 人間的인 것을 肯定하는 것임으로써이다. 格率은 오직 常識的 自明性에 基礎를 둔 것이나, 人間的 倫理의 압혜는 常識的 自明性은 維持되지 못한다. 왜-그러나 하면 現實的으로 所與된 그 어떤 規範도 이 倫理의 압혜는 明確性을 갖지 못하는 까닭이다.

어떤 自明의 事理도 이 批判의 압혜는 根據를 갖지 못한다. 오직 批判을 通하여 다시 檢討하며 吟味되며 새로운 根據를 獲得함으로서만, 다시 말하면 人間으로 새로 創造되는 대신만 倫理性을 獲得하는 것이다. 그런데 創造는 冥토스가 업시는 생각할 수 업다. 새로운 것에 對한 憧憬, 未來에의 渴求가 업시는 創造는 營爲되지 못한다. 도그마倫理는 오직 現實에 執着하며 過去와 未來는 오직 現實을 辯護하는대서만 必要한 것이나, 人間的 倫理에 잇서는 現在는 超克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며 오직 未來만이 그 目標인 것이다. 冥토스의 精神은 未來에의 精神이다. 冥토스의 精神은 現在에 살면서 現在를 超克하려는 精神이다. 그리하여 冥토스는 未來를 實現키 爲하여야는 過去도 現在도 未來化시킨다. 冥토스의 精神에서는 二千年前의 소크라테스가 今日의 理想主義보담 模範的일 수도 있다. 그것은 冥토스는 오직 連續의 立場이 아니고 非連續의 立場에서인 까닭이다. 이러한 冥토스의 精神이 批判的 意識과 結合되는데서 創造가 營爲되는 것이다. 今日의 倫理的 行爲는 『그것이 善한 것인가? 惡한 것인가?』를 말함이 아니요, 그가 自己를 잘 나타냈는가? 못나타 내었는가?』에 잇다는 것은 새로운 倫理는 오직 生産하여 創造함을 떠나 잇슬 수 업슴을 意味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人間的 倫理가 歷史的 見地로 보아 社會의 轉形期의 倫理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轉形期에 잇서는 一切의 社會的 規範은 人間을 乖離하며 人間의 發展에 오직 桎梏으로 橫在할 뿐이다. 이때의 最善의 行爲는 오직 人間을 擁護하며 그 桎梏을 超克하며 批判하며 그리하여 새로운 人間的 現實, 人間的 規範은 生産하며 創造하는 것이다. 그런대 超克하며 創造하는 것, 이것은 非凡한 個性의 일이며 英雄의 일이다, 그러므로 轉形期에 잇서는 英雄이 對望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不斷히 英雄을 지어내면서 잇는 것이다. 人間的 倫理는 새로운 意味의 英雄主義의 倫理라 할 수 잇는 것이다.

倫理는 行爲의 規範이다. 아니 本來에 잇서는 行爲와 規範이 둘이 아니요 하나이였다. 原始民들에게 잇서는 行爲 그것이 곧 倫理的이였었다.

그들에게 잇서는 무엇보담 生産하는 것 즉 共同體를 爲하여 잘 生産活動하는 것이 倫理的 善人이였든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行爲에는 分裂이 생겼다. 生産行爲의 박게 消費行爲가 생겼다. 그리하여 消費行爲가 生産行爲의 우에 君臨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隸屬시키게 되었다. 消費行爲가 生産行爲를 強制하며 命令하게 되었다. 이러한 隸屬關係는 從來와는 別다른 習俗을 가져오게 하였다.

처음에는 行爲 그것이 倫理的이였으나 이제 와서는 倫理는 命令하는 것으로 倫理的 行爲는 그 命令에 服從하는 것으로 變質하게 되었다. 이러한 習俗을 永續化시키려는대는 온갖 格率在 지어진 것이다.

베르손[베르그송]이 말한 『閉鎖된 社會』의 倫理는 實狀 이러한 行爲關係의 所産인 것이다. 社會의 均衡期란 實狀은 이러한 消費行爲와 生産行爲 또는 命令과 服從의 隸屬關係의 均衡이 維持될 때까지를 일음이다. 生産行爲가 消費行爲를 基礎로 한 온갖 倫理的 規範의 命令에 服從하는 것을 自己의 義務로 알고 거기에 依據하고 잇을 때까지를 일음이다. 그런대 이러한 倫理(格率的)는 一切의 善을 社會에 一切의 惡을 人間에 돌린다. 그리하여 社會의 온갖 規範에서 벗어나는 行動이면 그 理由 如何를 不問하고 道德的 惡人이라고 부르게 된다. 一切의 道德的 責任은 人間에게 잇고 社會에 잇지 안타. 오직 人間의 惡行으로 온갖 道德的 不美한 現狀이 생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社會는 人間을 □□하며 強制하며 壓迫하지 안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道德的 強制, 즉 格率的 倫理의 正體이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行爲의 隸屬關係가 그 均衡을 喪失하게 되었다. 生産行爲는 消費行爲의 隸屬으로부터 버서나려 한다. 그것은 그 隸屬에서 버서나지 안코는 生産者의 生存이 維持할 수 업스며 더욱이 生産行爲까지 계속할 수 업게 되었슴으로써이다. 지금까지는 消費的 行爲가 主體이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生産的 行爲가 主體가 되려 한다. 지금까지는 社會가 主體요 人間은 客體이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人間이 社會에 對한 主體가 되려 한다. 여기서 倫理的 關係는 轉倒하게 된다.